

북경지역 도서관 견학을 다녀와서

- 부산지역대학도서관정보교류회 2001년(제5차) 세미나결과보고 -

김 명 희*

목차 :

- 들어가며
- 청화대학 도서관
- 북경대학 도서관
- 중국국가도서관
- 마치며

들어가며

항사가 유난히 심한 4월 5일 우리 회원 14명은 북경으로 향하는 중국항공기 CA130 의 좌석에 앉아 처음으로 나서는 해외도서관 견학에 대한 설레임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중국항공 스텝들이 서비스와 기내식을 맛보면서 중국에 벌써 와 있는 듯한 느낌과 한국 관광객들의 떠들썩함속에서 두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느낌을 받았다. 시차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시계를 맞추고 다음날인 4월 6일에 있을 도서관 견학시 어떻게 인사를 나누며 진행을 해야 할지 구상을 해보기도 했다.

이번 여행은 부산지역대학도서관정보교류회 (이하 정보교류회) 제5차 세미나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북경지역의 도서관 견학이 주목적이었다. 정보교류회는 1995년 부산지역 대학도서관 사서 6명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결성한 후 현재 3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도서관 업무에 관련된 상호교류와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7년부터 매년 4월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세미나를 통해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도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회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사실 작년 4차 세미나를 북경지역 도서관 견학으로 하고 싶었으나 준비 부족과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로 미루어졌고, 공식출장이 아니라 회원개개인의 여비와 연가를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월 5일 공휴일에 출발하여 4월 6일에 도서관 방문을 하고 다음날인 토요일에는 북경의 주

* 경성대학교 도서관 사서(kmh4393@star.ks.ac.kr)

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견학할 도서관을 선정함에 있어 우리의 여건과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대학도서관 두 곳- 이공계열의 학교로 이름난 청화대학도서관과 문리계열로 동양최대의 대학도서관 규모를 가진 북경대학도서관을 선택하였고,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격인 중국국가도서관을 둘러봄으로써 중국 대표도서관의 규모나 시설들을 알아보기 위한 점에 신경을 썼다.

清華大學 圖書館

우리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40여분 거리에 있는 청화대학으로 가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아침 일찍 서둘렀지만 출근길의 교통란은 북경에서도 피해갈 수 없었다. 수많은 자전거 행렬과 차량들이 한꺼번에 쪼여 교통 신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도 별다른 사고 없이 교통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대학 정문에 도착한 후 10여분동안 찾아 헤맨 도서관의 건물이름은 逸夫館이라고 되어 있었고 미리 연락이 되었던 寶福榮(Fou Furong)선생님께서 劉桂林(Liu Guilin)관장님과 Hou Zhujun부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접견실로 안내해주셨다.

두 분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후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청화대학과 도서관의 간략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1년에 설립된 청화대학은 14개 학원아래에 41개의 학부가 있으며, 27,500명 학생중 석박사 과정생이 15,500명 정도의 연구중심 대학이다. 도서관은 1919년에 설립하여 1931년에 확장하였으며 우리가 안내된 건물은 1991년에 신축한 것으로 도서관 건축부분 대상을 받을 정도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Inovate project라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청화대학 도서관은 30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으며 실물장서와 전자매체의 비율이 2:1일정도로 전자매체에 대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OCLC 등 국외원문복사 신청건수가 1년에 10,000건 정도 된다는 것은 연구중심의 대학이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부관장님의 안내에 따라 도서관 투어에 나섰는데 1층에 검색과 대출을 할 수 있는 로비 형태의 공간이 있는 등 전체적인 도서관 시설은 우리와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정리실 근무환경을 보고자 협조를 구했더니 신관이 아닌 구관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 건물은 오래된 전통을 간직한 듯 담쟁이 덩굴에 쌓여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이었다. 정리실의 사서들은 모두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일렬로 앉아서 정리를 하거나 일부 독방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도서관 직원수가 160여명 된다는 얘기에 잠시 놀라기도 했다.

더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싶었지만 다음 견학지인 북경대학도서관과의 약속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아쉬움을 뒤로하고 부관장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北京大學 圖書館

청화대학과는 10여분 거리에 있는 북경대학은 호수와 나무들이 많아 마치 공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도서관 건물은 전통 기와와 현대식 대리석으로 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웅장한 박물관 앞에서 있는 느낌을 주었다.

우리가 안내되어진 곳은 회의실처럼 보이는 곳으로 戴龍基(Dai LongJi) 관장님과 각 부서

장께서 맞아 주셨다.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관장님으로부터 듣고 회원들이 궁금한 점들은 각 부서의 책임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 잠시 토론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북경대도서관앞에서 관장님을 모시고 회원들과. 아래줄 오른쪽 두 번째가 필자

관장님의 설명과 도서관 홍보용 CD자료 관람 및 투어를 종합한 결과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총 5만천㎡ 면적을 가진 도서관 좌석수는 4,000여석이며 동양최대의 대학 도서관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총 장서수는 650만권 정도이며, 1년 예산은 34억정도이며 잡지와 전자매체의 구입율이 73%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고등교육문헌보장체계(China Academ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 CALIS)라는 대학 협력망이 북경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관장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도서관 직원수가 200여명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인사 張申府, 毛澤東등이 도서관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웬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中國國家圖書館

점심 식사후 약속시간 보다 30여분 먼저 중국 국가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또 한번 건물의 규모

에 놀랐다. 대회협력부서 Zheng Buyun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1909년에 京師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북경국가도서관은 1987년에 신축하였으며 분관 3만㎡를 포함하여 총 17만㎡의 건물에 30여개의 열람실과 3,000개의 열람석이 있었다. 소장된 장서는 약 2,100만권 정도이며, 잡지종수는 중국서 9,800여종과 러시아 3,000여종, 서양서 2,800여종, 그리고 동양서 2,400여종이 구입되고 있었다.

제일 먼저 안내 된 지하1층 고서실은 입구에서부터 먹물냄새가 진하게 풍겨져오에 옛날 고서를 보관한 장소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명나라 청나라 이전 자료를 주로 소장하는데 제일 오래된 갑골문(3500년전)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315년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전자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소수민족자료실, 서양단행본실 등을 둘러보면서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납본 제도의 경우 중국국가도서관에서도 대부분 도서를 납본 받지만 학위논문은 박사학위논문만 납본받는다고 한다. 동양정기간행물실에 우리나라 잡지 87종이 소장되어 있다는 얘기에 모두들 궁금증을 가지고 갔더니 북한의 잡지들과 같이 배가되어 있어 필자로서는 처음보는 북한 잡지에 낯선 땅에서 고향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전체 투어를 마치고 중국의 사서제도에 대해 궁금점을 나타내었더니 북경시내의 경우 북경대학과 인민대학의 문헌정보학과정을 졸업하면 누구나 연구관원(중국에서는 사서라는 명칭보다 연구관원으로 불림)으로 도서관에서 바로 일할 수 있으며 비전공자(대졸)의 경우 근무 5년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동일한 직급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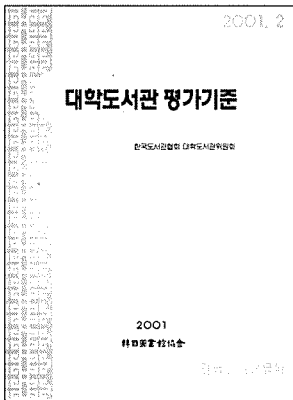
마치며

우리 정보교류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나섰던 이번 북경지역 도서관 견학은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북경으로 출발하기 앞서 세 곳 도서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해두긴 했지만 실제 둘러본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역사 또한 오래되었다. 역사와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문자의 특성상 DB 구축의 어려움으로 온라인 검색이 완전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연구원생들인 학생들의 수요에 걸 맞는 각종 전자매체와 자료들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전체 면적에 비해 열람좌석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자료 중심, 연구중심이라는 점등은 우리의 도서관과 비교해 볼만 한 것들이었다.

1시간 30여분만에 한 도서관 전체를 둘러보고 제공되는 서비스들과 시설들을 파악하기는 분명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각 도서관의 환대를 받으면서 해외도서관을 직접 방문해보았다는 경험만으로도 이번 5차 세미나의 의미는 높다고 본다. 5년 뒤 10차 세미나를 위해 미국 도서관으로 향하는 우리 회원들의 모습을 꿈꾸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 같다.

신 간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

목차

- 현행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분석
- 새로운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 대학도서관 평가기준표

구입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

4×6배판/70쪽/정가 11,000원
 회원보급가 8,800원
 ISBN 89-7678-051-5